



2026. 7. 30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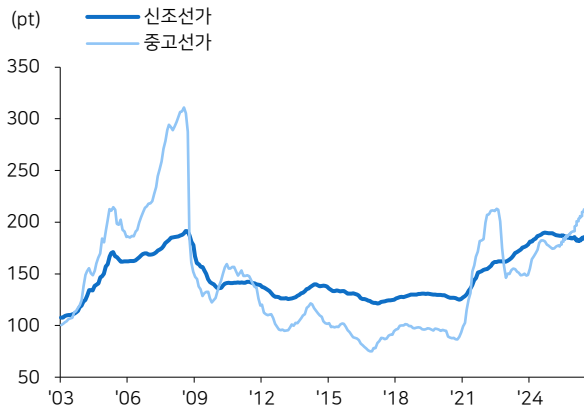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5.4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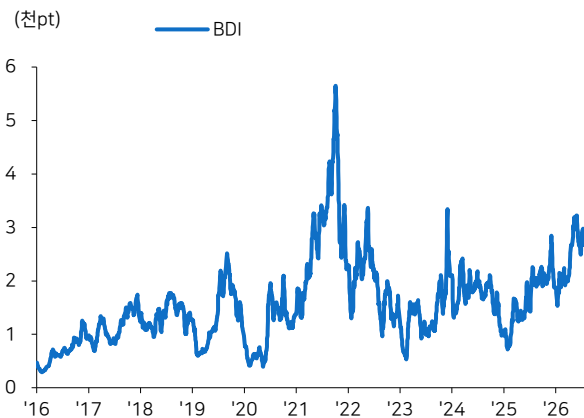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12.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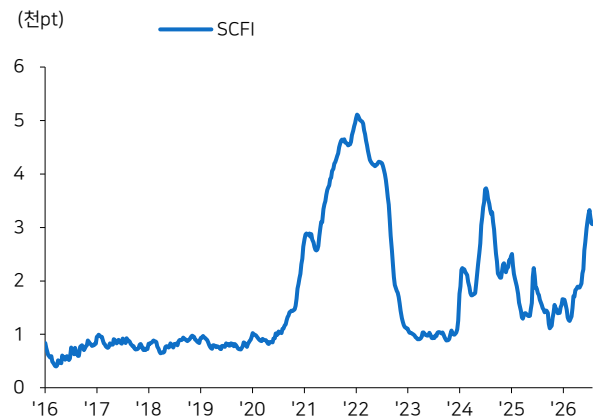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664.0p (-32.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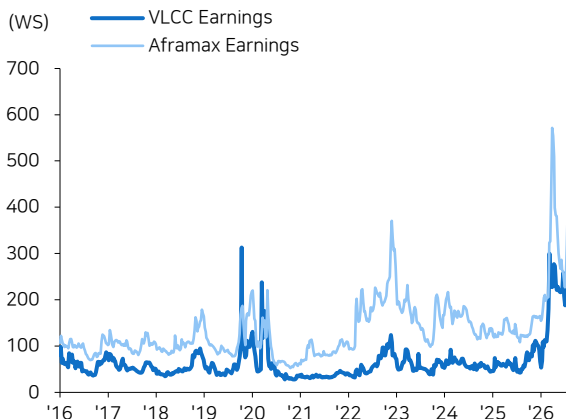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063.0(-17.4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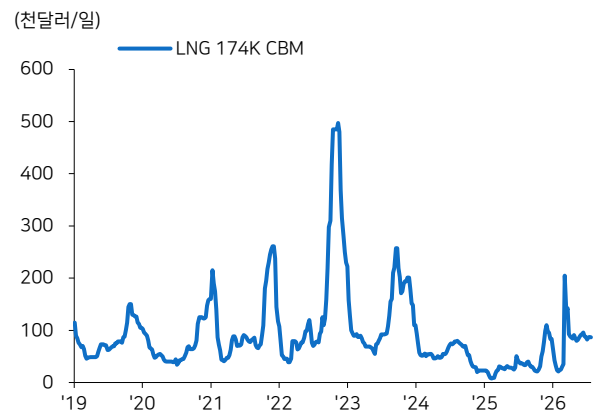
VLCC Spot Rate

228.0WS (+0.1p WoW)



LNG Spot 운임

86.5천달러 (-0.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트럼프 두 번 꺼낸 '군함 10척'...정부, 협의채널 제안 검토 (중앙일보)

<https://zrr.kr/2kcXWH>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미 군함 10척' 건조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한·미 정부 간 전담 협의 채널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됨. 미 국방부와 해군이 국내 조선 3사를 상대로 설계 및 건조 능력을 타진하는 등 실무 검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번스-톨레프슨법 등 법적 제약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 달 협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짐. 이번 군함 건조 협력을 통해 미 측의 시급한 요구에 선제적으로 호응함으로써, 정체된 한·미 안보 협상을 돌파하고 쿠방 등 양국 간 다른 현안을 풀어갈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이라고 알려짐.

GTT ups forecast for LNG carrier demand to 550 newbuildings by 2035 (TradeWinds)

<https://zrr.kr/Djd97T>

프랑스의 LNG 화물창 기술 기업 GTT가 2035년까지 필요한 LNG 운반선 전망치를 기존 450척 이상에서 550척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보도됨. 프랑수아 미셸 GTT 최고경영자(CEO)는 FID 완료 프로젝트(250척), 사전 FID 프로젝트(150~200척), 노후선 대체 수요(150~200척)를 바탕으로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으며,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LNG 운반선 수요에는 타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해짐. 아울러 역대 최고 수준인 19억 유로의 수주 잔고를 기록 중인 GTT는 2028년부터 연간 최소 100척의 건조 슬롯이 확보될 전망으로 내다봤다고 전해짐.

'Mitigation measures': Woodside taking bold steps to keep Louisiana LNG on schedule (Upstream)

<https://zrr.kr/Myo9m2>

호주 에너지 기업 Woodside Energy가 미국 루이지애나 LNG 프로젝트의 구조용 철강 조달을 위해 대체 물류 경로와 추가 제작 업체 확보 등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됨. 아랍에미리트(UAE)의 Bechtel 제작 시설에서 출발하는 철강 운송이 호르무즈 해협의 해운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루이지애나 LNG 프로젝트는 2분기 말 28%의 공정률을 보이며 2029년 첫 가스 생산 목표를 차질 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짐. 한편 98%의 공정률을 기록 중인 Scarborough 프로젝트가 올해 4분기 첫 LNG 카고 출하를 앞두고 있다고 전해짐.

Cheniere wins approval to introduce feedgas to last train at Corpus Christi expansion (Upstream)

<https://zrr.kr/xgoiMs>

미국의 LNG 수출 기업인 Cheniere가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로부터 텍사스주 Corpus Christi LNG 터미널의 7기 확장 프로젝트 중 마지막 액화 트레인에 피드 가스를 투입할 수 있는 승인을 획득했다고 보도됨. 1~4기 트레인은 2025년에 완공되었으며 5기는 지난 3월 실질적 완공 단계에 도달한 가운데, 6기와 7기는 2026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6기의 첫 LNG 생산은 임박했다고 알려짐. 한편 Corpus Christi 시설에서는 이와 별도로 중규모 트레인 8과 9에 대한 확장 공사도 진행 중이며, 해당 두 트레인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3분의 1 수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짐.

Baker Hughes lands massive gas turbine order from Texas power developer (Upstream)

<https://zrr.kr/TwyEHc>

Baker Hughes가 미국의 이동식 전력 발전 기업인 Dynamis Power Solutions로부터 석유·가스 개발 및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용 가스 터빈 수십 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이번 수주는 기어박스과 발전기를 포함한 NovaLT16 가스 터빈 76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 센터와 석유·가스 분야에서 총 1.3기가와트의 이동식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나 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알려짐. Baker Hughes는 데이터 센터 확장과 디지털화, 제조업 회기 등으로 북미 지역의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데이터 센터용 가스 터빈 수주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해짐.

K조선기자재, 아세안 공략 속도...친환경AI 기술로 수출 확대 (이데일리)

<https://zrr.kr/DLhx5v>

K조선기자재 업계가 친환경 및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앞세워 아세안 조선·해양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보도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 기관들이 공동 주관하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한 '2026 한-아세안 마리티타임 워크'에 국내 기업 40여 개사가 참여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 발주처와 공급망 협력 및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고 알려짐. 특히 인도네시아 국영 조선소 PT PAL, 말레이시아 MMHE, 베트남 VOSCO 등과의 협력 논의와 더불어 세호마린솔루션즈와 PT DPL 간의 친환경 선박 및 무인수상정 개발 업무협약(MOU) 체결 성과가 있었다고 전해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